

2016년 10월 2일, 한경면 용수리 김성준씨 댁, 김선희 조사.

제보자1: 김성준(남, 1946년생, 한경면 용수리)

제보자2: 김성아(여, 1948년생, 한경면 용수리)

[조사자] 힘센 사람 얘기 또 엊수과?

[제보자1] 이집이 제사가 기와집 그 이집이 제사가 방에 트는 제사렌 헤낫어. 비가 하영 왕 방에 트는 제사렌 헤낫주. 그 집 제삿날 비가 하영 와난 쟁이라. 이문간에 나둔 방에가 마당더레 터나가난 방에 트는 식게렌 허주게.

[조사자] 방에 들은 식게마씸?

[제보자1] 방에가 우리 키 사나 하는 그런 나무. 콕콕 쫓는 그거.

[조사자] 이집이 제사 말은 뭐꽈?

[제보자1] 아. 우리 정희 하르방 이실 때는 잘 알아낫어. 죽어불언. 우리 외삼춘. 그때들 넘어가던 사름이. 정시가 딱 그집이 오난 이 집이 마당으로 물 나거드랑으네 집을 풀아동 나가 불라 경 헤엿젠 헤여. 정시가 경 골아낫댄. 게난 마당으로 물나가난 집 풀아동 나가 불언. 그 후엔 집안이 안 된다 하는 거라.

[조사자] 그건 무사 마씸?

[제보자2] 그 집터가 세어노난. 다 망해연 나갓어.

[조사자] 집에서 물 나거들랑 나가 불라 한 거마씸?

[제보자2] 응. 물 나거들랑 나가 불렌. 좋지 아니하댄.

[조사자] 방에 잊어난 집 아니꽈?

[제보자1] 그 이집이. 기와집. 그디 이찬화가 이장 헤낫주게. 구장. 옛날은. 이제 그디 주순들 엊어.

[조사자] 그 집이 이 씨 이장네 집마씸?

[제보자1] 응.

[조사자] 게난 정시가 넘어가당 골은 말이구나예.

[제보자1] 응. 나가 불렌. 그것도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. 우리 외삼춘이 이장네하고 육촌

아니가게. 그디하고 육촌이난 잘 알양.

[제보자2] 가까운 디난 옛날은 다 안다 헤낫주게.

[조사자] 물 나믄 나가 불라 헤신디. 지금은마씸?

[제보자1] 그 후엔 그디 강 사는 사름은 다 안 뛰어. 만딱 망헤여 불언.

[제보자2] 그 집터가 세단 말이주게. 집터가 세 불민 이경 산 사름은 좋은디 경 안 하민 나빠.

[제보자1] 이건 우리도 아니 난 때. 그 집 짓엉 불이 나난 때 경 헷덴 헤라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1] 그 집 불 나난 하르방이 문만 덮으렌 허난 불이 그대로 꺼 불언. 상당히 튼튼하게 짓은 집이주. 큰아들 그 집 해여 주곡, 족은아들 집 혜영 주肯 낭허레 갓당 죽어불엇주. 그 하르방이. 그 하르방 죽은 싵게 하젠 하믄 비가 하영 와. 그 큰 방에가 물에 방방 트게 비가 하영 내렸거든. 경허난 방에 트는 식게엔 골아낫 어. 그 식게만 돌아와가민 비가 하영 와. 막 큰 내가 터져 낫어. 엄청나게 큰 방에가 물에 방방 떻이난.

[조사자] 방에가 뜨는 거마씸? 물에 뜨는 거?

[제보자2] 방에가 떠내려 가 불없지.

[조사자] 무사 이칩이 제사를 방에 트는 식게엔 헤신고예?

[제보자2] 제사. 제사. 제사인디 그 이칩이 집주인 제사하젠 하믄 비가 와나난 그 식게 돌 아와가민 아 방에 트는 식게구나 헤여. 그 그리 뛰가민 비가 와가민

“아이고 아무날 방에 트는 식게 왔저.”

하는 거주. 비가 계속 와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

“아이고 이칩이 방에 트는 식게 온 쟁이여, 방에 트는 식게 온 쟁이여.”

경 허주게. 이칩이 제사하는 날 비가 너무 하영 와서 방에가 트난 방에 트는 식게엔. 이문간에 나둔 것이 마당에 다 떠 뎅견. 비가 그만치 많이 왓지. 막 냇 물로. 방에가 소못 오죽 큰 거가. 그 방에 우리 육을 때??지도 셔낫어. 중간에 골동품 받으레 다니는 사람들허난 돈 얼마씩 주난 다들 줘 불언.

- 핵심어 : 이칩이, 제사, 식게, 정시, 불난 집, 기와집, 방에, 방에 트는 집, 큰 비